

# 여야 'NLL싸움' 중단 선언...砲煙정국 걷힐까

(포연)

최경환·전병헌, 동시 제안...금주가 분수령

양당 물밑접촉 31일째 대표회담 성사 추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쟁과 논란을 중단하기로 각각 선언한 것을 계기로 '포연'으로 가득했던 정국이 8월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6월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 대화록 공개 및 실종 사태 등을 고리로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이제부터 NLL에 관련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날 "더이상 NLL 논란을 벌이지 말자"며 "NLL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금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 김한길 대표 측도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당이 29일 물밑접촉을 통해 이르면 30~31일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등 국정조사특위 파행에 따른 정상화 문제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회담이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 녹음파일도 함께 열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양측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비공개 합의를 놓고 파행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금주중 정상화 가능성이 조 심스럽게 지켜진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 28일에도 만나 국정원 기관보고 문제와 증인·

참고인 채택 등 쟁점현안에 이견 조율을 했다. 다만, 양측은 국정조사 정상화에 노력하는데 공감하면서도 '일괄 타결' 원칙을 밝히, 국정원 기관보고 방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일부 증인 채택 문제로 막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황 대표는 3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하며, 최 원내대표는 금주 지역구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휴가없이 민생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9일부터 일주일간 휴식하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계획을 구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 맞는 '여름휴가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부터 4박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번 휴가는 지난 2월25일 취임 이후 5개월여를 쉬지 않고 달려온 박 대통령에게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힐링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듯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완전한 '업무탈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6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의 실무회담이 결렬위기의 상태에 빠지면서 대책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개성공단의 장기폐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고심할

박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구상될까

개성공단·밀린인사 등 '점점산중'

경제회복·일자리 창출도 챙겨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내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대 저성장을 탈출하면서 경제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청신호'이지만 여전히 체감경기는 좋지않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잠정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나 50일 넘게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 등 밀린 인사 문제도 박 대통령이 휴가 기간 챙겨야 할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본격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완전한 '업무탈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6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의 실무회담이 결렬위기의 상태에 빠지면서 대책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개성공단의 장기폐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고심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민주당 김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 등을 포함한 모든 정치현안을 주제로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제언했다.

# 입으로 "정쟁중단" 머리론 "수사·특검"

여야, 대화록 행방·사전입수설 입증 '뇌관'은 그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정쟁 중단'을 선언하면서 첨예했던 정치권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여야의 제안이 성사된다면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원본 열람 추진과 증발 확인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30여일의 '포연'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정쟁 중단 선언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뚫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을 의면한 채 과거사에만 매몰돼 네 탓 공방이나 벌일 때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새누리당의 7월 넷째주 지지율은 36%로 떨어졌다. 민주당 역시 같은 기간 18~20%를 오르락 내리락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입으로는 정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한 해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사초 증발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냥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외 회담 부속문서는 열람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NLL 포기 해석이나 없어진 대화록

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 언급하지 말자고 할 수 있다"면서도 "대화록이 유출돼 대선에 사용된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여야가 대화록 행방 수사와 사전입수설 등 각각 자당에 필요한 부분에 만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면서 파행으로 치달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어렵사리 국정조사가 재개된다 해

도 새누리당은 전·현직 국정원 간부에 정치적 대가를 제공해 폭로를 유도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은 대선개입은 물론 대화록 유출 경위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 대치가 금세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김만복(67)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편법 상속·증여 막기 차명계좌 처벌법 추진

# 안철수 '1호 법안' 주목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준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금 첫 번째 법안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경제, 복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했지만 우선은 경제 분야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립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중의 첫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

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29일부터 갖는 일주일의 여름휴가 동안 작가 조정래의 신작 '정글만리', 유명 만화가 윤태호의 웹툰 '미생',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등의 책을 읽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 후보

추천과정 투명 공개

장병완, 법안 대표 발의



임원 후보를 추천할 때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작성·보존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 추천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장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위원회를 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3층, 4층 시네마 분양완료  
 CGV 영화관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2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4층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